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주니어레인저 직업체험



운영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운영시간 3월~11월, 평일, 10시~12시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전화문의 (061-371-1187)

환경부 인증 제2017-109호

1강. 출동 주니어레인저 — 첫 만남!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와 내 고장에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을 소개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강. 국립공원 식물학자 — 국립공원 자원조사직 업무를 알아보고 식물자원직의 목적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만의 식물 관찰지를 만들고 자연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3강. 국립공원 녹색건축가 — 국립공원 기술직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을 배려하는 국립공원 녹색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친환경나무를 이용하여 나만의 목공예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4강.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교육을 중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자연해설 기법과 해설사 활동을 체험해봅니다.

5강.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 국립공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전문가들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고 국립공원에서만 할 수 있는 스마트 CPR 체험과 삼각건을 이용한 응급 처치법에 대해 배워본다.

6강. 국립공원 동물학자 — 국립공원 자원조사직이 하는 일 중 동물자원조사 체험을 통해 야생동물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세대 환경의 주역에게 야생동물 조사업무에 대한 진로를 제시한다.

7강. 국립공원 역사학자 — 국립공원의 자원조사직이 하는 일 중 문화자원 관리와 모니터링 체험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문화 보전관련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8강. 주니어레인저 졸업 — 주니어레인저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고 메달과 수료식을 수여한다. 국립공원 직업체험을 통해 국립공원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환경리더로 성장한다.

제 1 강

출동 주니어레인저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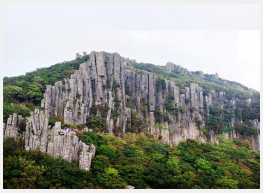
활동목표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과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 이해한다.
준비물	• 국립공원 영상 및 PPT(국립공원 소개), 현수막 천, 대나무,
유의사항	• 실내 교육 시 프레젠테이션 장비 점검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학생들의 인원 및 좌석 확인** • **교육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활동설명** – 참여자 및 강사 상호소개 – 사전설문조사	1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이해 (동영상)** – 우리나라 국립공원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국립공원에서 하는 일 및 다양한 직업(직종)설명** –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직종)	90분
	• **주니어레인저 팀별 현수막(깃발) 만들기** • **프로그램 참여 각오 및 소감발표**	
마무리 (생각나누기)	• **다음차 시 프로그램 소개 및 마무리 인사**	15분

시나리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이해 여러분, 혹시 국립공원이 무엇인지 아나요? (질문유도) 국립공원이란 우리가 지키고 알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와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분은 미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였던 왈라스 스테그너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하신 말씀 중에 “ National parks are the best idea we ever had”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국립공원 제도는 인류가 창안한 최고의 아이디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경치를 보면 어떤가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점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쉽게 자연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면 호랑이나 곰도 있고 또 절벽이나 낭떠러지 등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자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안전을 지켜준다면 자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국립공원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국립공원 제도는 인류가 창안한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을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즐거움을 공유한다.’ 이것이 바로 국립공원의 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바탕이 돼서 187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국립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립공원은 어디일까요? (질문유도) 1967년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현재 22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18개의 산악공원, 3개의 해상공원, 1개의 사적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무등산국립공원은 몇 번째 국립공원 일까요?(질문유도) 바로 21번째 국립공원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3월 4일 2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 75.425㎢로 광주광역시(북구, 동구)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개를 뿜어내는 산이라하여 무돌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두 번째,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의 무당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 무당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고 해서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붙였답니다. 이 무등산은 고려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고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때도 시민군들이 무등산을 거점으로 삼고 항쟁했던 만큼 예로부터 무등산은 광주· 전남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상절리인데요, 여러분, ‘주상절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상절리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기둥 주, 형상 상, 마디 절, 다스릴 리 라는 뜻으로 주상은 기둥모양을 의미하고 절리는 냉각작용으로 인한 수직 쪼개짐 현상을 말합니다.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5~6각형의 돌기둥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무등산에는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입니다.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무등산의 3대 주상절리라고 부르며 보통 우리나라 주상절리는 해안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등산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일 다양한 직업

국립공원 레인저? 무슨 말일까요? 파워레인저 일까요? 국립공원 레인저란 쉽게 말하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레인저라고 부릅니다.
국립공원 레인저들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동물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을 무슨 동물 같나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숲 (보금자리)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때문에 종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에서는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인허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속이나 산 속에서 어떤 동식물들이 있는지 생태계조사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단속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처럼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며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국립공원에 와서 다치게 되었을 경우 국립공원 안전관리반분들은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립공원 레인저는 여러분과 함께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또 무등산국립공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 고장이 국립공원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총 여덟 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소양을 쌓고 국립공원의 직업세계를 탐구해봄으로써 진로와 적성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2 강

국립공원 식물학자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 자원 조사직이 하는 일 중 식물자원조사 체험을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준비물	• 강의 교보재, 루페, 식물도감, 식물 관찰지, 피켓, 매직, 구급약품 등
유의사항	• 실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전달(이동 시 안전 및 생물 관찰시 유의사항 등)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프로그램 전 몸 풀기 스트레칭** • **프로그램 일정 소개**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국립공원 식물자원에 대하여 알아보기** – 식물자원의 중요성과 역할/ 식물자원조사의 목적과 방법 • **식물 자원조사 체험** – 루페, 식물도감을 활용한 모니터링, 식물 관찰지 만들기 •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질의 응답 및 소감나누기**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프로그램 일정 소개 식물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 국립공원 식물학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무등산국립공원은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무등산 곳곳에는 많은 식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식물학자가 되어 식물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식물 자원조사 체험 [단풍나무와 지의류 관찰하기] 식물학자는 숲속의 식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관찰하기 전에 앞에 있는 단풍나무를 함께 살펴볼까요?  단풍나무 수피를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누군가 페인트를 떨어뜨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곰팡이가 핀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지의류라고 하는 생물입니다. 지의류는 한자로 땅 지, 옷 의, 무리 류 풀이하면 땅의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의류가 많이 자란 이 단풍나무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무가 시들면 지의류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어 지의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무와 지의류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의류는 나무 수피의 표면에서 살기 때문에 나무의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의류가 영양분을 고정해 나무 생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건조한 지의류에 물을 뿌려볼까요?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건조할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비나 안개가 있는 날 수분을 흡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와 이슬을 꽉 잡아 두는 능력이 있어 나무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풍나무는 지의류가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고 지의류는 나무 생장에 필요한 물과 영양소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 관찰지 작성하고 소감나누기] 루페를 나눠 드릴 테니 다양한 식물을 관찰해보고 식물관찰지를 작성해보

세요. 내가 작성한 식물관찰지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친구가 큰 바위에서 자란 말발도리 한 그루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위 위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위 위에 자라난 지의류와 이끼 같은 것이 바위의 단단한 표면을 분해해서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식물학자가 되어 식물을 관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식물을 관해 관찰해보고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식물이 한그루만 자라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나요? 처음에 보았던 단풍나무와 지의류처럼 나무 한 그루에서도 작은 생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서 식물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 3 강

국립공원 녹색건축가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 기술직 업무와 시설직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준비물	• 국립공원 영상 및 PPT(국립공원 소개), 친환경 나무, 목공풀 등
유의사항	• 실내 교육 시 프레젠테이션 장비 점검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전달 (체험활동 시 도구사용에 따른 안전문제 등)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일정 안내 및 참여자 몸 상태 체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목공체험 운영 시 주의사항 전달 (도구사용 등)**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국립공원 녹색 건축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 국립공원 건축가가 하는 일 알아보기 – 자연을 배려하는 국립공원 시설물 살펴보기 • **친환경 나무를 이용한 목공예 체험**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질의 응답 및 소감나누기**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똑똑!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Yes가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미래에 내가 꾸민 집을 갖고 싶다! Yes or no! 두 번째, 나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Yes or no! 세 번째, 나는 어림짐작으로 길이를 잘 알아 맞힌다. Yes or no!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고장 나거나 부서진 물건을 잘 고친다.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녹색건축가 소개



만연탐방지원센터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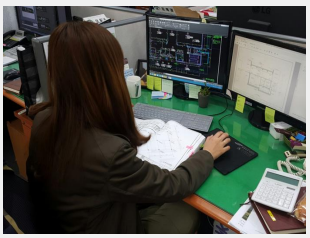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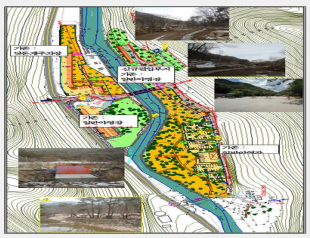
시나리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지난시간에 만났었던 무등산국립공원 만연탐방지원센터 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요? 계단이죠. 우리는 이런 계단과 같이 탐방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듬어 놓았는데, 이런 길을 탐방로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화장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바로 국립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쯤은 봤던 국립공원의 시설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국립공원 녹색건축가는 인간의 편리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배려하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건축가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립공원 건축가가 하는 일



CA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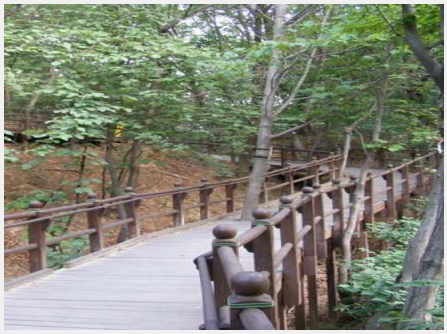
CAD를 활용한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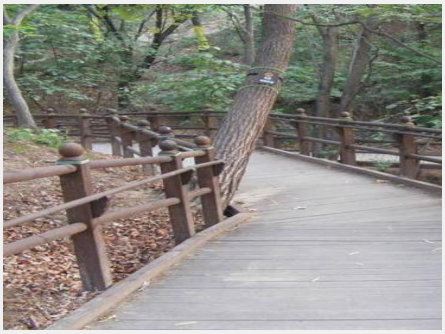
사진 속 직원 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CAD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렇게 설계도를 그립니다. 아까 CAD라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면 이런 설계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토대로 시설을 조성합니다. 왼쪽이 실제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 오른쪽은 조감도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구상해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설계도와 조감도를 통해서 이런 야영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건축가는 야영장,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립공원사무소, 주차장 등 여러분이 체험 온 장소, 생태탐방연수원,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깊은 산속의 대피소까지 이렇게 국립공원의 건축가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설계하고 만든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면 모든 일이 끝난 걸까요? 완전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지어져 있는 공원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합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땡 끝!!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안전상태는 어떠한지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배려하는 국립공원 시설물 살펴보기

국립공원의 시설물을 설계할 때, 녹색 건축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국립공원 건축가는 시설물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자연을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건축가가 어떻게 자연을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일반적인 건축시설물과 국립공원의 시설물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재가 다릅니다. 일반건축물은 시멘트나 철근 같은 소재를 사용하지만 국립공원 시설물은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 소재를 이용해요.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색건축가의 어떤 배려가 숨어있을까요?





탐방로를 설치하려는데 나무가 위치해 있다고 자르고 우리의 탐방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나무를 피해서 시설물을 짓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예전엔 군사시설로 만들었지만 이젠 필요가 없어진 철조망을 철거하기도 하고, 더 이상의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돌계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열에너지, 채광시스템을

이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이렇게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는 자연을 배려 한답니다.

마무리

이처럼 국립공원 녹색건축가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 둘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역할을 잘 해주는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가 있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국립공원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관련학과의 전공지식이 필요하겠죠? 또 공간지각능력과 미술감각 등의 능력,설계도는 필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CAD와 같은 프로그램도 잘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서 멋진 국립공원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4 강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 등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
준비물	• 강의 교보재, 우드락, 매직, 자연놀이 재료, 구급약품 등
유의사항	• 실외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전달 (이동 시 안전 및 생물 관찰시 유의사항 등)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프로그램 전 몸 풀기 스트레칭** • **프로그램 일정 소개**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 자연환경해설사가 하는 일 – 모 특정주제로 해설프로그램 기획, 발표하기! • **자연해설기법 소개, 해설사 활동체험** • **자연물을 이용한 나의 얼굴 표현하기(자연놀이)**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질의 응답 및 소감나누기**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자연과 생태계에 관심이 많고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에 도전해보세요! 국립공원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교육전문가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안내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경교육전문가가 되어 볼까요? 자연해설기법소개, 해설사 활동체험 환경교육전문가가 되어 직접 해설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시간입니다. 해설의 소재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가 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인 만큼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선택해 생태계를 연관시켜 해설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선정하였다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상대방의 흥미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해설을 해야겠죠? (죽은 나무를 보며) 바로 앞에 있는 죽은 나무라는 자원을 가지고도 재미있게 해설을 할 수 있답니다. [숲속의 작은 집, 죽은 나무] 옛날 깊은 산속 어느 절에 고스님 한분과 동자승 두 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동자승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두 동자승은 각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동자승은 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죽은 나무를 구해왔고, 다른 동자승은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동자승이 구해온 나무를 보고 스님은 한 동자승을 크게 야단쳤는데, 누구에게 야단을 쳤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살아있는 나무를 해온 동자승의 잘 못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님은 죽은 나무를 해온 동자승을 더 크게 야단 쳤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두들 가까이 다가와서 관찰을 해 보세요,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세요. 어떻습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썩어가면서 흙과 비슷해지죠? 썩는다는 말이 더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무에게 썩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숲으로 되돌리며 다른 생물들의 삶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나무의 죽음 이후는 훨씬 많은 생물들을 위한 또 다른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요? 쓰러져 깊게 패인 나무 구멍에는 족제비나 도마뱀이 몸을 숨기기도 하고, 지네는 납작한 몸을 이용해 나무껍질 속을 파고듭니다. 또한 장수하늘소와 같은 곤충들은 적당히 썩어가는 나무줄기에 산란을 하고, 그 애벌레는 딱따구리와 같은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땅에서부터 침투한 균사는 버섯을 피워내며 다시 그 버섯은 달팽이의

먹이가 됩니다.
이 외에 물기가 있는 수피에서 자라는 이끼와 습한 곳을 찾아 어느새 자리를 잡은 고사리 등 수많은 생명들이 이 곳 쓰러진 나무를 찾아 양분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나무의 이러한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지면서 자연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죽어 쓸모없다 바라보던 나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형형색색의 예쁜 꽃을 피우는 살아 있는 나무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숲속 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이자 탄생의 원동력이 되는 고마운 죽은 나무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나만의 해설프로그램을 기획해보세요! 완성되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연물을 이용한 나의 얼굴 표현하기




나뭇가지, 나뭇잎 등 자연물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보세요.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을 표현해보고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자연놀이를 통해 자연물을 만져보고 생각하며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환경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생물학과 환경학과, 산림과학과 등 동식물에 관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되고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친화적인 능력과 자연을 보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질을 갖추었다면 자연환경해설사나 숲해설사, 교원자격증 등 자격증을 따서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환경교육 전문가로 일을 하면 된답니다.

제 5 강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직업소개를 통해 안전관리 직업에 대한 식견을 넓힌다.

준비물
- 국립공원 영상 및 PPT(국립공원 소개), 스마트 CPR, 구급약품 등

유의사항
- 실내 교육 시 프레젠테이션 장비 점검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하기**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일정소개 – 똑똑!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 **안전관리 전문가 (이론)** –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의 중요성 –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하는 일 • **안전관리 전문가 (체험)** – 국립공원 스마트 CPR 체험 – 삼각건을 활용한 응급처치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질의 응답 및 소감나누기**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똑똑!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보도록 해요. 첫번째, 나는 평소엔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Yes or no! 점심먹고 쉬는 시간에 항상 공차고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친구 있나요? 두번째, 나는 평소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핀다. 세번째,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보람을 느낀다. 이 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안전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전관리의 중요성 여러분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 국립공원 내 일어난 사고를 접하고 국립공원 직원이 구조한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국립공원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는 안전관리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봅시다 (영상) 우리나라는 등산과 같은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등산이라는 것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자연 속 산행인 만큼 주변엔 수많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여러 위험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우는 바로 계곡 범람으로 이어지며,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태풍이나 폭풍은 바로 해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해상국립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겠죠? 가을철에 접어들어서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면서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탐방은 바로 저체온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을 자칫하면 눈사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하는 일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는 폭우 또는 얼음이 녹거나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일어나는 낙석과 산사태지역을 조사하고, 번개로 인한 감전에 대비하기도 하며, 위험한 지형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격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추락 심지어 심장돌연사의 위험까지 조사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왔었는데요. 전체 사고 발생건수는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만, 심장돌연사의 경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산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전문가는 안전한 탐방환경을 만듭니다. 안전산행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국립공원 현장에서는

사전에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우량경보시설과, 기상관측시설, 재해문자전광판을 운영하며 탐방객들에게 알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산행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산행방법에 대해 탐방객들에게 교육하기도 하며, 낙석이 생기기 쉬운 곳에서는 직접 출동하여 낙석을 제거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생길시 빠르게 구조하기 위해 평소 탐방객 구조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탐방객 안전 사고 뿐만 아니라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가가 더 큰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우리나라의 22개의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사고상황에서도 국립공원의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신속히 위기에 빠진 탐방객들을 구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지 않나요?
“구조활동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 굳이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필요할까?”와 같은 궁금점들 말입니다. 물론 119 구조대원들도 구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험준한 산악지역과 도서 지역까지 119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립공원의 지리와 지형을 잘 알고 특수한 산악구조장비를 갖춘 국립공원만의 안전관리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산악구조훈련에 있어서는 119 구조대원들이 국립공원에서 구조훈련기술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답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 중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해 배워봤는데 어땠나요?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관련 분야의 공부를 해야겠죠? 관련학과는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소방안전관리반, 안전공학과, 체육학과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응급처치강사,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수상인명구조원 등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제 6 강

국립공원 동물학자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 자원조사직이 하는 일 중 동물자원조사 체험을 통해 야생동물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준비물	• 강의 교보재, 지점토, 야생동물 족적뜨기 교구, 우드락, 매직, 구급약품 등
유의사항	• 캠페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친구와 잡담하지 않는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프로그램 전 몸 풀기 스트레칭** • **프로그램 일정 소개** – 이동 시 주의사항 전달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국립공원 동물학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 국립공원 동물학자가 하는 일 • **국립공원 동물학자 체험** – 자연관찰로의 야생동물 흔적 찾기 – 야생동물 족적 만들기 체험활동 • **자연보호 캠페인 피켓 만들기 및 캠페인 실시**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캠페인을 직접 해보고 느낀 소감나누기**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국립공원 동물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동물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흔적이 뭘까요? 바로 발자국과 배설물입니다. 동물학자들은 땅에 찍힌 발자국의 크기, 모양을 보고 어느 동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늑대, 여우는 발가락이 4개씩 있고 발톱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표범이나 호랑이는 발가락이 4개지만 발톱은 찍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서운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물학자가 되어 야생동물을 찾아봅시다!

국립공원 동물학자 체험

야생동물 흔적 퀴즈를 풀면서 국립공원에는 어떤 야생동물이 살아가는지 알아봅시다.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킨다. 말이 도착한 칸에 있는 동물 발자국이 어떤 동물일지 힌트를 통해 맞춰본다.]

(발자국을 보며) 무등산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발자국에 찍힌 물갈퀴입니다. 물갈퀴와 긴 꼬리가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하는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 수달입니다.





주로 산골짜기 계곡이나 강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물속에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수달은 숨을 쉬어야하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바위나 나무뿌리 밑에 저절로 난 구멍에 집을 마련합니다.

이 집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는데, 바깥으로 드나드는 구멍은 물가 쪽으로 나 있어서 물로 드나들기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집 위쪽에는 나무뿌리나 돌 밑으로 숨을 쉬기 위한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는 답니다!

이번에는 배설물을 찾았습니다. 이 배설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고양이를 닮았지만 고양이보다 몸집이 크고 점이 많은 동물은 바로 삵입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삵의 개체수

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긴 것은 고양이를 닮았지만 성격은 아주 무서운 호랑이를 닮았습니다. 사냥을 아주 잘해서 꿩 새끼,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를 잡아먹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이렇게 삵의 배설물이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나 여기 산다, 여긴 내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눈에 띄는 곳에 배설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여러분들과 함께 동물학자가 되어 동물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동물을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야생동물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었나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많은 야생동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붉은여우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우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영리한 동물입니다. 사냥할 때 죽은 척하거나 아픈 척해서 호기심 많은 꿩, 토끼를 사냥하기도 하고 물풀을 뒤집어쓰고 오리에게 몰래 다가가 잡아가먹기도 합니다. 또 적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서 나무 위로 잽싸게 올라가 냄새의 흔적을 없애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여우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쥐잡기 운동으로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놓았습니다. 이 약을 쥐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은 쥐를 또 여우가 먹어서 많은 여우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동물도 소중히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요즘 모기 때문에 모기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기약 하나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오늘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작은 동물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기로 약속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7 강

국립공원 역사학자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자원조사직이 하는 일 중 문화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체험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준비물	• 문화자원 모니터링 일지, 구급약품 등
유의사항	• 실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의 사항 전달(이동시 안전 및 생물 관찰 시 유의사항 등)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프로그램 전 몸 풀기 스트레칭** • **프로그램 일정 소개** – 이동 시 주의사항 전달 – 똑똑!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국립공원의 역사학자 주요 업무 소개** – 국립공원 역사문화자원과 국립공원의 노력 • **무등산국립공원 역사 탐방** – 문화자원 모니터링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질의 응답 및 소감나누기**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똑똑!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자 그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나는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한다. 두 번째, 나는 노트 필기를 잘하며 문서정리를 잘한다.
세 번째 나는 역사 속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역사학자 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역사학자

여러분들은 위의 사진을 본적이 있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로 바로 국립공원 중에서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은 요즘 어디로 수학여행 가나요? (질문유도)



친구들,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단 한 글자입니다. 바로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돌멩이를 역사적인 중요자원으로 볼 수 있는 눈, 보석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매는 사람보다 4~8배 정도 되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욱더 예민한 눈이고,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매와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이런 매의 눈으로 공원 내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내거나 역사문화자원의 숨은 의미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연구하여 국보, 보물 등 문화자원 현황을 종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립공원 역사 현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전체 지정문화재가 712개이고, 천연기념물은 70개 등 문화재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역사를 찾으러 떠나 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무등산의 3대 주상절리 기억나나요?
입석대, 서석대 그리고 광석대입니다. 오늘은 광석대와 광석대 바로 아래에 있는 규봉암 이라는 사찰을 가볼 것입니다.
역사를 간직한 이 규봉암 코스는 올라가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광석대 역사 탐방

무등산 정상에서 동남쪽에 자리잡은 광석대는 해발 850m이상이며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속합니다. 광석대는 규봉암이라는 암자를 둘러싸고 있어서 규봉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에는 광석대를 돈대 대 자를 써서 넓고 평평한 돌을 광석대라고 불렀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규봉암을 둘러 싸고 있는 돌. 즉 넓은 광, 돌 석, 띠 대를 써서 이 일대의 층암괴석을 광석대라고 부릅니다. '광석대를 보지 않고 무등산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광석대는 무등산의 절경 중 가장 으뜸인 곳입니다. 2016년에 영화의 한 장면, 숨은 명소 찾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광석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상절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 줄 아시나요? 첫 번째로 광석대는 나이가 많습니다. 보통의 주상절리는 지질시대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졌지만, 광석대는 그 보다 훨씬 오래전인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그 가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주상절리는 바닷가에 있지만 광석대처럼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주상절리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지형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광석대의 돌기둥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30~40m 의 높이 입니다. 아파트 20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6각기둥의 최대 너비는 저의 손바닥보다 무려 35배 나 큰 7m 이상이 되는 대형 주상절리로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상절리입니다.

광석대에는 곳곳에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 군데가 있는데요! 송하대, 광석대, 풍혈대, 장추대, 청학대, 송광대, 능엄대, 법화대, 설법대, 은신대 등 이를 십대라고 부릅니다. 그 중 재미있는 전설을 가진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의 이름은 풍혈대입니다. 풍혈대는 바위를 올라 돌 틈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위를 빠져나가면 총각은 장가를 빨리 가고 지옥 길을 면한다고 합니다. 3번 빠져 나가면 삼재에 든 사람이 그 액을 면한다고 합니다. 처녀가 풍혈대를 빠져 나가면 시집을 가서 순산을 한다고 하여 순산대라고까지 하며, 노인들은 극락을 간다고 하여 극락대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빠져 나갔는지 바위틈이 윤기나 있다고 합니다.

문화자원 모니터링하기

규봉암 입구 왼편에는 곧게 뻗은 쌍둥이 돌기둥이 나란히 있는데 원래는 절의 입구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돌기둥을 규봉(광석대) 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 바위를 삼존석이라고 부릅니다. 삼존석은 규봉암 입구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바위로 여래존석, 관음존석, 미륵존석입니다.

도선국사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며, 이중 여래존석과 미륵존석은 마치

누군가 돌을 껴놓은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운에 있는 돌은 마지막 빙하기인 뷔름시기 주상절리대 가 얼고 녹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삼존석보다 높이 있었던 절리가 깨지면서 바위사위로 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관음존석은 어느 때인가 지진으로 윗부분이 끊겨져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광석대와 규봉암에 올라왔으니 역사학자 체험을 해야겠죠?

광석대와 규봉암에 있는 돌기둥들을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저기 삼존석에 있는 글씨를 우리 같이 관찰해볼까요?



'同福守金祺中' 한자를 해석해 보면 동복수김기중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김기중은 대한제국기에 동복 현감을 지냈는데 재임 중 이곳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입니다. 경치도 좋고 바위가 크게 들어서서 관찰사나 고을 현감이 유희를 즐기며 돌기둥에 (다녀간) 글을 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광석대는 그저 평범한 돌기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신을 수양하던 곳 이었고 무예를 갈고 닦으며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을 기르던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관찰사나 고을 현감이 광석대에서 유희를 즐기고 글을 쓰며 다녀간 흔적을 돌기둥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석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선물해주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랍니다. 소중한 무등산의 주상절리가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무등산을 사랑하자는 약속을 다짐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 8 강

주니어레인저 졸업식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활동목표
- 국립공원 직업체험을 통해 변화된 환경의식을 알아본다.

준비물
- 명함, 동영상, 메달, 수료증, 네임펜, 설문지 등

유의사항
- 실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의 사항 전달(이동시 안전 및 생물 관찰 시 유의사항 등)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일정 안내 및 참여자 몸 상태 체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나의 미래 명함 만들기** – 나의 꿈(장래희망) 발표하기 • **함께한 시간 돌아보기 (동영상)** • **주니어레인저 졸업식** – 메달 및 수료증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느낌과 앞으로 자세 공유** – 설문조사 및 참여후기 발표 • **참가자 활동에 대한 환류 및 마무리 인사**	10분

나의 미래 명함 만들기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요리하는 것, 책 읽는 것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나중에 커서 직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삶의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존 뮤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존 뮤어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 늘 함께하며 숲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29세 때 위스콘신 대학에서 몇 년간 공부하다가 대학을 마치지 않고 뒷마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연'이라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국 곳곳을 누비며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탐사하였습니다. 마침내 요세미티 세콰이어 숲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 숲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국립공원이 지정되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존 뮤어처럼 좋아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야기 눠봅시다.

시나리오

[나의 미래 명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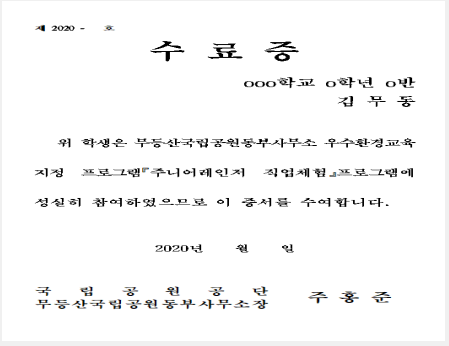
미래의 나의 직업을 생각해보고 명함을 만들어봅시다. 명함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의 장래희망을 이야기해봅시다.

주니어레인저 졸업식

주니어레인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미있었던 직업체험과 그 이유를 이야기 해봅니다.



메달



제 2020 - 호

수 료 증

000학교 0학년 0반
김 무 동

위 학생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우수환경교육지정 프로그램『주니어레인저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립 공 원 공 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주 홍 준

수료증

첨부3 : 현황사진



